



주 제:	“용서와 사랑.”	“연중 제 11 주일” (다해)	2007년 6월 17일
복음 묵상:	루가 7,36-8,3	2 사무 12,7-10.13	[갈라 2,16.19-21]

위대한 다윗도 죄를 범하였고, 나단의 고발에 묵묵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 어떠한 벌도 감수하겠다고 하느님 앞에 다짐하였습니다. 그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뉘우칠 줄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를 나단에게 고백하였고 하느님께서 그를 용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므로 당신 자신을 제시하고 죄 사함의 원한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고해성사를 게을리 하면 할수록 다시 성사를 볼 마음이 내키지 않게 되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며 성사를 안보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냉담자가 됩니다. 죄 사함을 받는 고해성사를 보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시합시다. (대구 이 성억 신부님 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 30주년 음악제 준비를 위한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주에는 합창부분에서는 Gloria #11 과 # 12 를 연습 하였고, 오케스트라 부분은 일요일 오후 4시부터 본당에서 첫모임과 수요일 두번째 연습이 학부모들의 열성적인 협조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합창부분과 오케스트라 부분의 지휘를 최효원 도미니카 자매님이 수고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 **환영.** 지난 주에 박진아 안젤라 자매님이 성가대 봉사에 함께 하였고, 금주부터 김영옥 안젤라 자매님이 입단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 드립니다.

2. 가족 동정

- 지난 주일, 아침연습과 미사는 이 상규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이 수고해 주셨고, 오후 연습은 최효원 도미니카 자매님이 미사곡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 이대원 요한 형제님 6/17 부터 24 일까지 예정으로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십니다. 여행 중에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유비오 지휘자님과 요안나 자매님 동부방문 마치고 6/21 아무탈없이 무사히 다녀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구영조 사도 요한형제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시어 이곳에 있는 동안의 성가대 가족들의 사랑에 감사한다는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함께 생활하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3. 기도 요청

- 30주년 기념 음악제의 원만한 개최를 위하여 음악제가 주님의 뜻대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연습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양형원 바오로 본당 신부님 영명 축일이 6/29(금)입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은총 내려주시길 주님께 청해주시요. 축하식은 6월 24일 (일)교중 미사중에 있겠습니다.



1분 명상

“용서...”

어느 부자지간에 평소에 잔정이 없고 폭력만 휘둘렀던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카운슬러가 그 가족 내력을 알고서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라도 용서해 보라고 그리고 나를 낳아 주어서 고맙다고 이야기해보길 권했습니다. 아들은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개처럼 변해 어머니도 때리고 자신을 포함한 아이들을 학대했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 수년간 남처럼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용서며, 고맙다고 말하겠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니 그 카운슬러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혹시 아드님은 아버지의 기대에 꼭 맞는 아들이었는지 생각해보라고 충고했습니다. 사실 그 점에서는 아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병원을 방문하고 망설임 끝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식노릇만해서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도 그동안 너무나 자신이 지은 죄가 컸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꺼내니 이제는 사랑한다는 고백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칠 뒤 아버지는 임종하였고 그 아들은 그 용서와 사랑을 고백한 체험이후 자신이 가족들에게도 정겹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유 없이 짜증나고 화를 내었던 자신이 많이 변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두 아버지와 화해한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의 현재를 어루만져주는 일이며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일은 하느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해자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든 또 그 사건으로 어떤 영향을 받던 간에 하느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용서를 하기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2 사무 12,13)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